

국제행정학회 및 국제행정교육기관연합회 공동학술대회 개막식 축사

존경하는 장 마리 아탄가나 메바라 IIAS (국제행정학회) 회장,

알란 로젠바움 IASIA (국제행정교육기관연합회) 회장,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국제행정학회와 국제행정교육기관연합회의 공동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처럼 권위있는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오신 회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 건물 1층에서 열리고 있는 '정부혁신 국제 박람회'를 돌아봤습니다. 각국의 정부혁신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우리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정부가 주도하는 일사불란한 체제를 통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했습니다. 권위적이지만 능률적인 정부가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면서 성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행정환경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민사회의 성장과 함께 국민의 권리의식과 참여욕구가 크게 신장되었습니다. 권위적인 정부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위적인 정부로서는 지금과 같은 혁신주도형 경제시대를 앞서갈 수도 없습니다.

저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서 정부를 어떻게 혁신하느냐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힘과 역할이 물론 크기는 합니다만, 시장을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역시 정부의 몫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혁신은 시장경쟁력, 나아가서는 국가경쟁력의 토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정부혁신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쟁력을 갖춘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 문턱은 낮아지고 문은 활짝 열려 있는 봉사과 참여의 정부, 중앙과 지방이 함께 국가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분권화된 정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을 국정 의 원리이자 정부혁신의 좌표로서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 직속으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정 전 분야에 걸쳐 100개의 혁신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가시적인 성과가 시작되었습니다. ‘국가인재 발굴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부처 국장급 직위에 대한 부처간 인사교류를 단행했습니다. 예산의 총액배분과 자율편성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책평가 시스템이라든지, 공직자 부패 방지대책, 정부통합전산망 구축사업이 하나하나 착실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서 버려야 할 일은 과감하게 버리고, 고쳐야 할 시스템은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불합리한 관행과 문화까지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국민은 주권자로서, 정부는 진정한 봉사자로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

니다.

이러한 정부혁신은 바로 ‘거버넌스(governance)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전자정부의 구현은 이러한 변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여러분은 3년 후에 열리는 다음 공동학술대회에서 새롭게 변화된 대한민국 정부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무엇보다도 학습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학습 없이 혁신에 성공한 일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학습조직은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정부혁신의 샘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의 성공사례들이 공직사회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도 매우 긍정적인 변화의 하나입니다.

이외에도 성공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많이 있습니다. 저와 국무위원을 비롯한 리더들의 혁신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합니다. 타율적인 방식이 아니라 공직사회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시스템의 혁신을 통해서 지속적이고도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과정에서 정부간의 교류, 또 오늘과 같은 학술회의를 통해서 혁신을 앞서서 성공시킨 나라들의 사례들을 배워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꾸준한 노력과 성공을 통해서 많은 국가들이 우리 한국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봉사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학회와 연합회 회원 여러분,

저는 이번 학술대회가 ‘거버넌스’를 주제로 선택한 것은 대단히 시의적절했다

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경험과 학문적 성과를 나누고, 보다 나은 대안을 찾는 뜻 깊은 학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머무시는 동안 즐겁고 유익한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